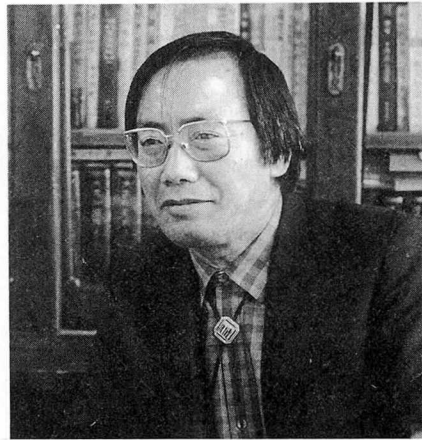


우리문학의 思想史的 체계 「韓國古小説史」로 정리

蘇在英

송실대 국문과 교수



문학사의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는가 既刊의 문학사를 몇권쯤 읽어본 사람이면 상상이 간다. 자칫 잘못 나열하면 概論이 되어버리고, 지나치게 파고들다 보면 史的 흐름의 줄기가 잡히지 않고 토막토막 끊기고 만다. 구체적 한 분류사인 「小説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天台山人이 「朝鮮小説史」(1933)를 세상에 내놓은지도 어언 50년이 흘렀다. 일제 치하에서 쌓아올린 개인의 업적이 반세기를 지난 오늘 얼마만큼의 성장과 진전이 있었느냐고 반성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화적 발달은 시간의 진행과 비례한다기보다는 어떤 계기나 상황과 더 큰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韓國古小説史」 집필의 틀을 짜놓고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충 다음의 몇 가지 어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작품의 선택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소설의 총수는 약 6백편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天台山人이 소개하고 있는 작품수는 150여편, 梗概를 소개한 작품수는 40여편에 이른다. 작품의 나열이 물론 작자와 시대성을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그후 많은 작품이 새로 발굴되었고 평가도 달라졌으니 선택의 기준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家門小説(樂善齋本)의 새로운 발굴로

「明珠寶月聘」(100책)·「玩月會盟宴」(180책)·「尹河鄭三門聚錄」(105책) 등의 장편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소설사가 읽기 쉬웠던 短篇 중심이라는 비판도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작자의 문제가 있다. 사실 고소설의 작자는 그나마도 한문소설 중심으로 20여명만이 밝혀져 있을 뿐이니, 연대순 작품배열에 더욱 어려움이 뒤따른다. 게다가 작자의 異說논의는 논쟁의 소지까지 안고 있으므로 더욱 망설여진다. 한 예로 「六美堂記」의 작자를 천태산인은 '雲峯가 徐有英인가 金在堉인가 當俟後考'라고 하였다가, 金起東이 이를 김재육으로 잘못 고증하고, 張孝鉉이 다시 서유영으로 바로잡기도 하고, 「丁侍者傳」의 釋影影庵을

金鉉龍이 德興君諱로 밝히는 등의 성과를 얼마만큼 잘 반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세째, 표기문자의 문제가 있다. 한문과 국문의 표기는 서로가 넘나들고 있으므로 이를 밝히자면 자연 原典措定(arbitration)의 문제에 부딪친다. 근래 「九雲夢」의 老尊本(한문본)선행설을 주장한 丁奎福의 연구가 좋은 한 예로 보여지며, 같은 한문본끼리도 「金鰲新話」와 燕岩소설의 문체는 전혀 구분해서 기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 소설의 비교문화적 관점과 해석의 문제이다. 적어도 중국과 일본소설은 그 영향의 수순면에서 일단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몇몇 작품의 비교에만 그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문화사적 안목의 결여를 지적할 수가 없다. 「金鰲新話」와 「剪燈新話」, 「洪吉童傳」과 「水滸傳」, 이러한 도식보다는 三國의 문화적 역학관계가 소설 발달의 배경으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작품의 해석문제가 남아 있다. 과거처럼 고소설을 천편일률적으로 권선징악적 도덕률의 척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대소설을 자질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심리적·풍자적 방법 등 시간과 공간의 축을 이동하면서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줄거리 소개에만 그치는 단조로움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집필중 부딪친 당면문제들을 무질서하게 나열해 보았다. 그동안 고소설 분야의 새로운 개별적 부분적 업적들은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史的 체계 속에서 평가되고 반영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필자는 「古小説史」의 간행이 종국적으로는 문학사의 한 골격을 이루고, 우리 문학의 사상사적 체계의 바탕이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天台山人은 물론 朴晟義의 「韓國古代小説史」(1958) 이후 30년의 공백이 누군가에 의해 하루빨리 메꾸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이 작업이 몇년을 끌더라도 보람있는 성과를 얻도록 자책하고 채찍질하고자 한다.

相反된 두개의 세계 넘나드는 「물의 나라」와 「冬天」

朴範信

소설가



동아일보에 작년 봄부터 연재했던 소설 「불의 나라」가 끝난 것은 올해 9월이었다. 우직한 시골청년 「백찬규」가 무작정 상경하여 밀바닥 삶을 전전하면서, 풍자와 야유의 어법으로 인간성과 도덕성이 상실된 현대도시문화와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쓴 이 「불의 나라」는 연재중 분에 넘치는 관심을 모았다. 한마디로 말해 이 소설은 '거시기문화'로 말해질 수 있는 백찬규의 정직하고 소박한 삶과 '특별시문화'가 맞부딪치는 현장을 다룬 것이었다. 분에 넘치는 관심을 모았던 것도 그 소재의 보편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그 관심에 등 기대어 자의반타의반 시작한 「물의 나라」를 요즘은 역시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있다.

불은 서구적이고, 물의 이미지는 동양적이다. 「불의 나라」에선 백찬규라는 인물을 통해 못가진 자, 그러나 도덕성으로는 보다 우위인 자의 삶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물의 나라」에선 새로운 중산층이라고 할까, 도덕적으로 굴절된 소위 '줄부'들의 비뚜러진 모습을 그려내보이려고 애쓰는 중이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풍부하지만 내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따라서 이미 부패한 그들은 꿈이 없다. 죽은 꿈의 허울만 화려하게 둘러쓰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 시대의 꿈은 무엇일까. 「불의 나라」에서 그랬듯이, 이 질문은 「물의 나라」에서도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꿈은 건강한 희망이고 가슴 뜨거운 진실이며 아름다운 목숨이다. 나는 「물의 나라」에서 가능하면 가진자들의 죽은 꿈, 허상으로서의 꿈을 날날이 들춰내어, 그 반어법을 통해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도시가 꿈꾸는 건 진실로 무엇일까, 하는 점을 말해보고 싶다. 짐작하거나와 정치의 계절인 요즘, 목청높은 소리로 화려하게 방방곡곡 울려 퍼지는 말의 성찬들, 그것이 꿈은 아닐 것이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린 게 확실해보이는 이럴 때, 꿈은 어쩔 더 낮은 목소리로 지하수처럼 우리들의 발 밑에 숨어서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월간 「文學思想」에 「冬天」이란 소설을 또 쓰고 있다.

「물의 나라」가 특별시를 배경으로 현장감

있는 주제를 그리고 있는 것에 반해 「冬天」은 자유당 말기, 세상과 교동이 별로 없는 한 산골의 외딴마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冬天」에선 감히 '죄'와 '업보'의 문제를 다룰 생각이다. 우리 고유의 '풍수리지' 사상도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할 것이다. 일편 현실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으나 내 생각은 다르다.

요즘은 조금씩 운명론에 기우는 느낌이다. 창 너머 참담하게 말라죽은 칙닝쿨을 서성서성 보고 있노라면, 그 말라죽은 칙닝쿨 사이에도 보람이 살고 있는 걸 확인해 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운명론만으로는 소설이 될 수 없다. 운명론의 내면구조를 나름대로 밝혀 보려 한다면 그것은 소설이 된다. 「冬天」엔 죄와 업보, 또는 사랑과 증오의 어둡고 운명적인 칼라가 주조로 깔릴 것이다. 이 소설의 앞으로 쓸 장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어깨가 숙는다.

겨울이 들이닥치고 있다. 「물의 나라」와 「冬天」, 전혀 상반된 두개의 세계를 넘나들며 나는 이 겨울과 앞으로의 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소설가로 사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외로운 작업이라 하더라도.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 20호분 · 값 1만원
전화문의 : 732-1431~3